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a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정비(브롱스) 2801Webster (718) 295-3252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Pl.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연(스테판노)지과 콜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알버트스(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문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점 공인 회계사 Young&Jull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종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광고모집

제1673호

2011, 7, 31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태오 14, 13 - 21)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18주일

ㄹ 입당송 (시편 70(69),2,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대영광송>

ㄹ 제1독서 (어서 와서 먹어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1-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술과 젖을 사라.
 2.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145(144),8-9,15-16,17-18(● 16))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1.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 ●
2.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3.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ㄹ 제2독서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5,37-39)

형제 여러분, ³⁵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³⁷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³⁸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³⁹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마태 4,4ㄷ)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ㄹ 복 음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3-21)

그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¹³ 들으신 예수님
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¹⁴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¹⁵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¹⁶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¹⁷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¹⁹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²⁰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²¹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 영성체송

(지혜 16,20)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7/31 8시	이 상식	윤 광석	윤 기애	이 상자
11시	김 철	한 광희	조 부자	손 대심
8/7 8시	이 상자	김 부균	방 경숙	박 미순
11시	이 윤형	양 명상	양 정남	이 연경

복 사 : 이 제영 & 조 중형 김 도균 & 안 정훈

봉헌자 : 윤구식&주성문 가족 다음주 : 장운화&추성태 가족

현금봉사 : 다윗의 탑 Pr 다음주 : 하늘의 문 Pr

운전봉사 : 방 문덕 다음주 : 이 준섭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본당신부님(생미사) : 임베로니카 봉헌

부주임신부님(생미사) : 임베로니카 봉헌

최카타리나[연월](생미사) : 이휴고[덕성], 민스테파노[경구]봉헌

손다니엘[치원](생미사) : 유다니엘 가족봉헌

윤제식(생미사) : 신아네스 봉헌

송세실리아[화준](생미사) : 김사무엘[여철] 가족봉헌

정요나[두화](생미사) : 성가대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부모님 기일(연미사) : 강마가렛[순연] 가족봉헌

이근배(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원금식(연미사) : 이데레사[효순] 봉헌

이세원(연미사) : 이줄리아 봉헌

강마리아(연미사) : 서진협 가족, 윤포카스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임유리안나(연미사) : 서진협 가족일동, 한빅토리노[성천], 문아네스[옥희],

김리디아[현정], 윤포카스, 김요한[종구],

이안드레아[중연], 하늘의 문 Pr 일동봉헌

이데레사[임숙], 서부브롱스 맨하탄 구역원 일동

성가

입당 :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성가 21)

봉헌 : 제물 드리니 (성가 342)

성체 : 주여 함 하소서 (성가 151)

파견 : 내 맘의 천주여 (성가 24)



교회 소식

(1) 예비자 교리반 시작

예비자 교리반이 지난24일(주일)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기회에 인도하도록 합시다.

(2) 단체장 간담회

8월7일(주일) 11시미사후 회의실에서 각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단체장들은 1년 행사 계획표를 지참하시고 간담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M.E. (행복한 주말부부)

제66차 부부주말 피정이 9월3일(토)-5일(월)에 Wyndham Garden

Hotel, Newark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대표부부

장 윤화(알폰소) 914-523-9887 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교구청 기금(Stewardship Appeal)

교구청기금을 아직 미납 하신 분은(교무금 1달치) 회계연도 8월말

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5) 성가대 솔로리스트(윤마리아) 음악회

솔로리스트 윤정자 마리아의 음악회가 8월14일(주일) 11시 미사 후
(점심제공) 12시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6) 본당 골프대회

본당 골프대회(청소년 기금마련)가 8월21일(주일) 12시부터
스프레인 레이크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100 이며
(점심, 저녁제공)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신청은 본당 골프회장
한치남(에드워드) 형제님이나 총무 방문덕(막시모)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7) 가족이 함께 미사참여

방학을 맞아 미사 때 아이들을 부모님들 사이에 앉혀주시고 가정에서는
아침, 저녁기도를 빠지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본당 활동단체 휴가

8월 한 달은 각 단체모임이 없습니다. 9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
하셔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여 미사에 참여합니다.

* 이번달(7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뉴저지 구역입니다.
다음달(8월)은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145.00

감사헌금 : \$ 500.00(서진협 가족), \$ 80.00(야채할머니)
\$ 50.00(에어로빅 팀)

교 무 금 : \$ 4,600.00

변대수(7-9)	남혁우(7-8)	윤석철(5-7)	조강희(3-6)
최인숙(완납)	정강수(6-7)	강순연(7)	김문배(6-7)
신대철(7)	정순조(7-9)	최광자(7-8)	서명희(7-8)
임석태(완납)	이무성(1-9)	추인숙(7-8)	김문자(8)
양명상(7-9)	정철수(6-8)	최 필(6-8)	윤인순(7)
박민흠(완납)	김대현(완납)		

Stewardship Appeal : \$140.00

누계 : \$ 7,915.00

변대수 윤석철 최연월 김여정

무슨 “살이”

한국말에는 무슨 “살이” 라고 하는 말이 있다. 즉 시집살이, 처가살이, 셋방살이, 등등...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살이라는 뜻은 무엇에 종사하거나, 기거하여 살아감을 나타내는 말”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살이 라는 말속에는 나의 주관이라던가, 또는 주인의식 같은 것이 없다. 따라서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면 시집에서 한 식구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시댁에 종사하는, 아니면 그저 얹혀서 사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긴 옛날을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나올 만 하기도 하다. 3-40년전만해도 한국에서는 여자가 어느 집에 며느리가 되면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시댁을 위해 온갖일 다 하면서도 집안에서 무슨 권한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살이 라는 말이 나오고도 남을 만 하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신문을 보니 한국에서는 요즘 며느리 살이 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시어머니 지시 하에 온갖 집안일 을 다했는데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온갖 집안일 다하고, 손자도 돌보는데 며느리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하면서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요즘 70세 전후에 있는 주변 노인들이 모여 앉으면 며느리 이야기를 많이 한다. 주로 섭섭한 이야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6-70세 되는 우리들 세대는 시부모님을 모셨고, 이제는 며느리를 모시는 세대라고 한탄도 한다. 며느리가 없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딸들을 생각해본다. 나의 며느리가 된 나의 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그러면 남의 며느리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 나의 딸들이 결혼해서 시댁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변에서 듣는 그 며느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딸들에게 시댁식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권하면 딸들은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도리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딸들의 말을 듣고 보면 그럴듯 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당당하게 할말도 다 하고, 아무리 시어머니이지만, 시어머니도 당신의 일은 당연히 스스로 해야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하긴 근래에 와서 살이 라고 하는 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살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사라져 가기 때문인 것 같다. 근래에 와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그런 삶에 종사하는 거나, 기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으니. 며느리들과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시어머니들도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 그렇게 살이 라는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 몽은